

## 호야와 진검승부 - 바른 말을 찾아서 -

유종호 · 전 연세대 석좌 교수

### 1. 호야와 등피

어린 시절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보냈다. 전기 대신 램프 불을 켜고 그것은 등잔불보다는 밝고 또 운치도 있었다. 오래전에 세상을 뛴 오장환의 <길손의 노래>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남다른 감회가 따르는 것은 자신의 유년 경험과 연관된 것일 터이다.

석유 불 섬벽이는 객창 안에서  
이해 접어 처음으로 내리는 눈에  
램프의 유리를 다시 닦는다.

석유램프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세대에게는 생소한 소재요 경험일 것이다. 여기 나오는 ‘램프의 유리’를 그 무렵 ‘호야’라고 불렀다. 이 말이 일어(日語)이고 우리말로는 등피라 한다는 것을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살게 되면서 호야란 말을 쓸 기회가 없으니

자연히 잊고 지낸 것이다. 그을음이 잔뜩 묻어 거멓게 된 호야 속을 조심스럽게 닦는 것은 하루나 이틀거리로 이해하는 일과이기도 했다. ‘호야’처럼 부지중에 우리가 쓰는 일어는 적지 않다. 일어라는 의식 없이 쓰기 때문에 우리말이라고 알고 쓰는 것이 수두룩하다.

해방 직후 국어 순화 운동을 전개하며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일어 추방이었다. 당시 군정청에서 제작한 국어 교과서에는 왜색 단어를 쓰지 말자는 글이 실려 있었다. 세목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야채’ 대신에 ‘채소’, ‘외출’ 대신에 ‘출입’, ‘수미일관(首尾一貫)’ 대신에 ‘시종일관’, ‘일석이조 (一石二鳥)’ 대신에 ‘일거양득(一舉兩得)’을 쓰자는 등의 내용은 지금껏 기억하고 있다. 교과서에 난 글의 지시 사항을 고지식하게 준수하여 나는 그 후 ‘수미일관’, ‘일석이조’ 등의 말은 써 본 적이 없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적대적 타자로 등장한 일본은 한편으로 서구 문명을 일찌감치 수용하여 근대화를 성취한 곤혹스러운 타자였다. 이러한 일본의 양면성이 우리의 대일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저들은 근대 학문이나 법률 제도, 기술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말들을 만들어 냈고 그것은 그대로 유입되어 우리도 쓰게 되었다. 철학, 윤리학, 형이상학 등의 용어가 서구어의 번역어로 일인들이 만들어 쓴 말이다. 니시 아마네(西周)란 번역자의 이름까지 알려져 있다. 한편 연설, 응변 같은 말도 일본의 선각자가 번역어로 만들어 퍼뜨린 것이다.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는 청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연설이란 말도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책을 모아 두는 서고는 어디에나 있었겠지만 도서관이란 말도 일인들이, 이를테면 영어 ‘library’의 번역어로 만들어 낸 것이다. 처음엔 서적관(書籍館)이라고도 했지만 도서관으로 통일 귀결된 것이다. 사회, 연예, 개인, 근대 같은 말도 모두 개화 이후 만들어 낸 말이다.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차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엄연히 유서 깊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쓰지

않고 일본식 한자어를 빌려 쓴다는 점이다. 식구 대신에 가족, 노자 대신에 여비, 역사(役事) 대신에 공사를 쓰는 것은 이제 대세가 되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체호프의 희곡 <세 자매>는 이제 정착이 된 듯한데 굳이 우리 식으로 <딸 삼형제>라 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런다고 따라갈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서적이나 신문을 보는 계층의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처럼 쓰는 것은 장한 일은 아닐 것이다. 20세기 시인 가운데에 일제 한자어를 쓰지 않은 시인은 김소월이다. 만년에 몇 번의 탈선을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시집 <진달래꽃>에서는 우리 쪽 한자어만을 썼다. 남달리 반일 감정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시인의 직관으로 우리의 유서 깊은 한자어를 아껴 쓴 것이다. 이런 시절의 말과 고향 사람들의 말을 쓰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리 된 것이지 의식적인 노력의 소산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민족 시인이란 존칭을 받아 마땅하다.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 변화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 문명의 이기와 함께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들어오게 마련이다. 인터넷이나 디지털이란 말은 그대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억지로 거기 해당하는 우리말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어 장치를 마련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외래어 폭주를 견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미 차용어나 속어의 형태로 정착된 단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원을 알아 둘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자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 속 일어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꼭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알고 씀으로써 그 남용을 막고 또 가려 쓰자는 것이다.

## 2. 땅깡과 진검승부

‘땅깡 부린다’는 말이 있다. 일종의 속어로서 누군가가 난동을 부린다

든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억지를 부리는 경우에 흔히 쓰인다. 여기 보이는 ‘땡깡’은 간질병을 가리키는 일본 말인 ‘덴캉(癲癇)’에서 나온 것이다. 일명 지랄병이라고도 하는 간질병은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며 정신을 잃고 눈이 뒤집히고 계거품을 흘리면서 벼둥거리는 병이라고 되어 있다. 간질병 환자의 발작 현장을 보고 나면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그만큼 보기 흉한 것이다. 그래서 ‘지랄한다.’는 말은 간질병 환자의 발작을 서술하는 말이기보다 욕설이 되어 버렸다. 보기 흉하게 난동을 피운다 해서 ‘땡깡 부린다’는 말이 나온 것이리라. 뇌에 외상이 있거나 종양이 있어 생기는 경우와 원인 불명의 진성(眞性) 간질이 있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간질병 환자였다. 그의 부친은 술고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느 날 농노의 원한을 사서 마차 속에서 살해되었다. 형제들도 모두 중독자에다 괴짜였다. 그의 간질 병이 부친의 알코올 중독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간질 병 환자는 발작 직전에 발작의 예감을 갖게 되고 그때 어떤 황홀경에 빠진다고 한다.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땡강을 부리는’ 이도 순간적인 도취감이나 해방감을 맛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단도리 한다’는 말도 더러 쓰인다. 어엿한 정기 간행물에 실린 단편 소설의 지문에서 보기도 했고 대화에서 들은 일도 있다. 한글 학회 간행 사전에는 장도리의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일어의 ‘だんどり(段取り)’를 그대로 쓰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극에서 줄거리의 조립을 가리키기도 하고 일의 순서나 방법을 정하는 것 또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말의 문맥에서는 어떤 사태에 ‘대처한다’든지 ‘조처를 취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다. 일어의 용법이 느슨히 차용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말 문맥에 놓고 보면 외국어나 외래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이 말이 흔히 쓰이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일어이니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차용어로 굳어질 만큼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방치하면 그리될 가능성성이 많다.

‘진검승부(眞劍勝負)’란 말은 한자어인 탓에 일어란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일어이다. 문자 그대로 진짜 장검으로 승부를 겨루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진검승부에서는 어느 한쪽이 죽게 마련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일본에 검도란 게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해방 전엔 각급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검도를 장려했다. 그래서 검도복과 죽도와 목검은 학교마다 비치되어 있었다. 상대를 공격할 때엔 구령을 붙이게 되어 있어 연습 현장에 가 보면 구령 소리와 죽도 소리로 자못 시끌벅적하였다. 검도의 특이점은 결정적 일격으로 시합이 끝난다는 것이다. 진짜 장검으로 승부할 때 일격을 받으면 그것은 죽음이나 치명상을 뜻하기 때문에 더 연장될 수 없다. 그래서 죽도나 목검으로 겨루거나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장검으로 겨루는 것을 진검승부라 하고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된다. 우리의 경우 진검승부란 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 이것은 엄연히 무사도의 전통을 지닌 일본의 말이다. 그럼에도 가끔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문자를 쓴답시고 사생결단을 뜻해서 “진검승부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단연 몰아내야 할 일이다.

장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루스 베니딕트의 『The Chrysanthemum and Sword』는 『국화와 칼』이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다. 여류 인류학자가 쓴 이 책은 일본 연구의 고전으로 널리 읽힌 책이다. 우리말에서 칼이란 말은 부엌칼에서 창칼 또는 장검까지 가리키는 말이다. 창칼과 긴 칼이란 말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쨌든 칼은 총칭의 표현이다. 그런데 영어의 ‘sword’는 장검 즉 긴 칼을 뜻한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이웃집 서방님은 군도칼 차는데  
우리 집 저 문둥이 정지칼 차네

김종서는 호쾌하기 이를 데 없는 시조에서 ‘장검’이라 했고 충무공은 한산섬에서 노래한 시조에서 ‘큰 칼’이라 했다. 유머러스한 밀양 아리랑에서는 군도 칼이라 되어 있다. 일본은 군도인 장검을 예술품으로 간주한 희한한 나라라고 어느 서양인이 말했다. 그들의 장인 정신을 평가해서 하는 말일 텐데 일본의 장검에는 제작한 장인의 이름이 새겨 있었다. 정색하고 작품성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그 책은 『국화와 장검』 혹은 『국화와 일본도』라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도 더러 쓰인다. “그렇게 이 정당 저 정당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하는 식으로 쓰인다. 이것은 명백한 한일 합성어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다. 동작의 병행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일어의 조사 ‘たり’가 슬그머니 우리말 속으로 스며들어 온 것으로 일어를 좀 아는 세대들이 무의식적으로 쓴 용법의 잔재라고 생각된다. 이런 투의 일어는 해방 직후에는 극히 많았으나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아리아리 보인다’, ‘앗사리’란 말이 그런 유형이다.

되풀이하지만 순수주의나 순혈주의를 택해서 모든 외래어나 차용어를 배격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고 쓰자는 것이요 될수록 유서 깊은 우리말이나 우리의 어법을 간수하자는 것이다. 외래문화와 함께 들어와 외래어로 굳어진 말을 굳이 배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식집이 널리 퍼지면서 덩달아 퍼진 ‘스시’니 ‘와사비’니 하는 말은 생선 초

밥이나 고추냉이와 같은 말로 제 물길을 찾았다. 그러나 우동이니 짬뽕이니 하는 말을 일일이 고쳐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동은 우리의 국수와는 다른 일본식 국수다. 그러니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요새 젊은이들은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다는 게 내가 관찰한 바이다. 어려서부터 자습서의 단어 해석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 온 관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용례가 풍부해서 그냥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큰 사전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중학교에서 영문법이란 것을 배웠다. 따로 영문법 시간이 있었고 매우 딱딱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좋은 사전을 보면 거기에 문법에 관한 모든 사항이 들어 있다. 외국인이나 초보 학습자를 위한 영영 사전처럼 좋은 문법책이 따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례가 풍부하고, 최초로 쓰이게 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우리말 큰 사전』의 간행일 것이다. 말의 미묘한 차이를 감득케 하고 말의 매혹적인 면을 이모저모 가르쳐 주는 사전을 읽어 보는 것은 최상의 국어 교육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